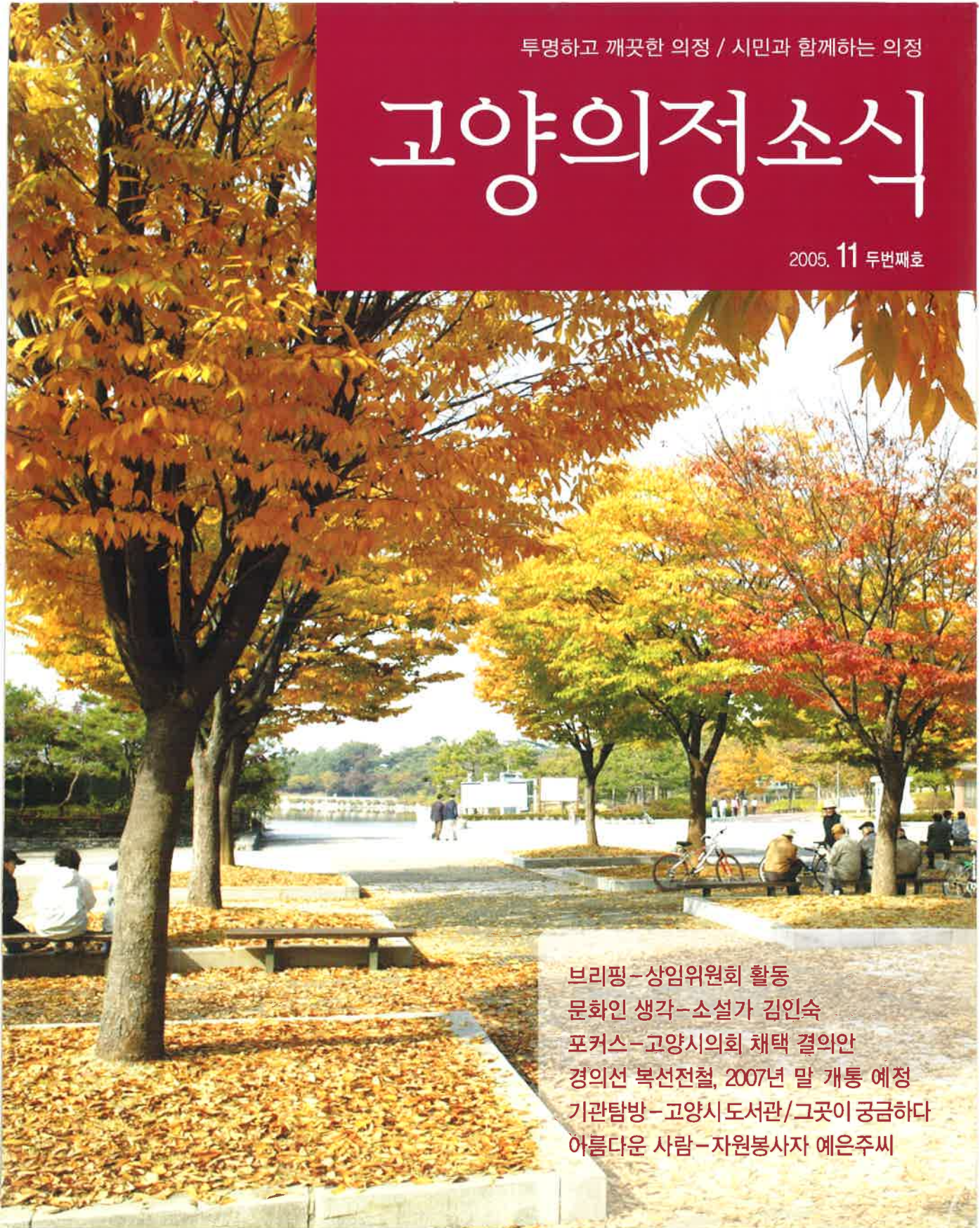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 /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고양의정소식

2005. 11 두번째호



브리핑-상임위원회 활동

문화인 생각-소설가 김인숙

포커스-고양시의회 채택 결의안

경의선 복선전철, 2007년 말 개통 예정

기관탐방-고양시도서관/그곳이 궁금하다

아름다운 사람-자원봉사자 예은주씨



2005년 제 18회 행주문화제 승전거리행진



표지사진
호수공원의 가을

시민의 소중한 글을 가다립니다

고양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원고종류: 시, 수필, 콩트, 체험수기, 만화 등 제한없음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3~8매
- 접수처: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 의회사무국 고양의정소식지 담당자
- 전화: 031-961-2521~3
- 팩스: 031-967-8045

CONTENTS

시 고양의 가을-김진영	01
기획특집 지방자치와 정당참여에 대하여-김진영	02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편집부	04
문화인 생각 대련에 간다-김인숙	07
브리핑 상임위원회 활동-편집부	08
말 시의원 칼럼-김혜련, 김달수, 박윤희, 이재황, 최경식	13
기관탐방 그곳이 궁금하다-애들아 ~놀러가자, 도서관으로-손미경	18
포커스 고양시의회 채택 결의안-편집부	20
의정중계석 정례회 및 임시회 안전처리-편집부	22
초점 경의선 복선전철, 2007년 말 개통 예정-김미정	25
의원동정-편집부	27
문화산책-편집부	31
고양시 나들이 - 쇼핑명소 일산 덕이동 '로데오 거리'-송승환	32
시민의 소리	34
퀴즈당첨자 발표	35
의원의 현장읽기 국토순례를 다녀 와서-최성권	36
건강상식 가을건강, 따뜻한 차 한잔으로 톡-손미경	37
의원소개	38
아름다운 사람-자원봉사자 예은주씨-전익숙	40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고양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 가을

김진영 (시인 · 수필가)

가을 호수공원
 발끝에서 피어오르는 안개가
 마두동 초가집 처마에
 하얗게 내리면

어머니 어머니

풍동 들녘에는
 누런 벼이삭 한 알마다
 밥 짓는 냄새,

고봉산 감돌던 가을바람
 겨드랑이 사이를 지나
 해담은 이삭들
 여물기를 재촉한다.

어머니 어머니

김포 대교 아래
 한강의 푸른 물줄기는
 물고기들의 목젓을 키우고

고양으로 돌아오는
 가을 들녘에는
 아침마다 널리 널리
 어머니의 부르심이
 여기저기
 하얀 그리움으로
 피워 오른다.

어머니!
 자꾸 불러야만
 다가갈 수 있는
 위대한 대지의 젖가슴!



지방자치와 정당참여에 대하여

지방자치제는 지방마다 특색 있는 지방분권적인 기능과 운용이 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하고, 여전히 예산과 제도적인 면에서 중앙 집권적 요소가 강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정당에서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공천하도록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선진 외국의 정당 참여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지역의 정치행정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처리함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그 구성요소로 한다. 즉 주민자치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여 통제하는 것이며, 단체자치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영국은 개별 법률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주민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다수정당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방제도를 통일화하고 획일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다소의 정당 관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주민자치가 발전하여 중앙의 통제와 간섭에서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다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선거에 정당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다.

일본은 지방의회 의원을 정당의 공천이나 표방은 인정하지만, 정당인의 당선이나 역할은 미미하다. 이렇게 선진국들은 지역주민들의 자치능력과 자치법 제정으로 독자적인 자치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므로 지방선거에 정당참여 문제도 상대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정당참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앞서서 정당의 참여가 크게 논란이 되었다.

그래서 정당이 후보자 공천과 선거운동에 관여하므로 지역단위에 정쟁적인 파장을 도입시킨다는 폐해를 우려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제 47조 제 1항은 “정당은 선거(자치구·시·군 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광역의원선거나 기초단체장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허용하면서도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에만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것은 지방행정이 지니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중앙정부가 광역, 기초단체를 강력히 통제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통제하는 수직적 통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당참여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악영향들이 나타나므로 정당참여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지방선거제도와 정당참여의 장·단점

장점은 훈련된 정당인의 추천으로 행정운용에 전문성을 띄우고,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중앙정부 차원의 기능적 권력통제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오늘날 정당을 통하지 않는 정치와 선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 헌법 제8조 제1항도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복수정당제를 통한 정당민주주의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다.

단점은 기초의원선거에 정당이 관여하면 선거가 정당들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물을 뽑는 것이 어려워지고, 정당이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쳐 기초의회의 자율적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이념이 충실히 구현될 수 없으며 자치행정에 대한 정당의 통제가 강화되고, 지역의 전문적인 자치 서비스 기능을 저해할 뿐더러 중앙정부와 정당의 이익에 따라 지방자치가 좌우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 제도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서 지역사회 변화의 수용과 주민의 복지 및 생활환경의 균등 수준유지를 위한 행정과 재정상의 자치능력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은 전문성과 다원적인 민주주의와 신중앙집권을 인정하려 할 것이므로, 정당이 지방선거에 관여할 의지를 가지는 한 지방선거가 정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건전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요구에 따라서 미국처럼 지역별로 선택적으로 정당의 배제가 가능하다면 자율적인 지방자치의 실행으로 지역 자치적인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고 하겠다.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집회(국회의사당 2005. 10. 13)

김진영 편집위원 jykim8135@yahoo.co.kr

참고 문헌

1. 지방자치법, 천병태 저 삼영사 2003년 P50-66
2. 지방자치행정론, 장병구 저 형설출판사 2000년 P132-133
3. 기초의원선거와 정당추천, 논문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2005 을지훈련 근무자 격려
고양시의회 의장단 일행은 지난 8월 24일 시청 내 을지훈련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가상 전시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 화정 꽃 우물대 스카우트 대원 의회 체험

한국스카우트카톨릭 연맹 소속 "화정 꽃 우물대 대원"이 현장탐험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5일 고양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청사 및 본회의 의사진행 사항과 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교육 및 의회 영상물 시청 등 다양한 현장체험을 하였다.



▲ 추석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고양시의회 의원 32명은 지난 9월 16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20kg들이 쌀 72포대를(320만원 상당) 구입하여 덕양구 관산동 신양요양원 등 관내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전달했다.

2005 기초질서 및 교통캠페인▶
(2005. 7. 20)



▲ 울진친환경엑스포 견학 (2005. 7. 22)



▲ 도시건설위원회 선진지 견학, 함안박물관 (2005. 7. 23)



▲ 도시건설위원회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현장 확인
(2005. 7. 27)



▲ 사회산업위원회 선진지 견학, 서귀포 선인장 전시관
(2005. 8. 8)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2005. 제2회 고양시 자원봉사 박람회
(2005. 9. 24)



▲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현장 확인 (2005. 9. 21)



▲ 새마을 소득지원 기금 조례 폐지안 및 친환경 도시
건설 용역 간담회 (2005. 9. 7)



▲ 2005. 경기북부지역 노인일자리 박람회 - 고양시의회 노인취업
부수 운영 (2005. 9. 30)



대련에 간다

문화인 생각



김 인 숙

소설가. 1963년 서울 출생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소설집: 칼날과 사랑,
브라스밴드를 기다리며,
그 여자의 자서전
장편소설: 우연, 꽃의 그늘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수상

지난해까지 내가 2년 동안 머물렀던 중국의 도시 대련에는 일산같은 신도시가 있다. 정확한 명칭은 경제기술개발구. 보통 약칭으로 개발구라고 불리우는 이 신도시들은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후에 건설된 경제특구들인데 전국적으로 수십여개나 되지만 그 중에 성공을 한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다. 대련의 개발구는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신도시이다. 대련은 중국의 5대 도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가장 큰 수출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러시아와 일본이 차례로 점령을 했던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그 해안을 쫓아 들어선 신도시들이 또한 아름답다.

내가 중국에 머물고 있던 동안, 내 주소는 대련시 개발구 송해리. 그러니까 나는 신도시 주민이었던 셈이다. 대련 시중심에서 택시를 타고 삼십분쯤 걸려 바다를 두 번 건너면 발전소 거대한 굴뚝에 '개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자가 보인다. 서울과 일산이 다른 것처럼 대련과 개발구도 다르다. 개발구 사람들은 대련 시내에 볼일이 있을 때, '시내에 간다'고 하지 않고 '대련에 간다'고 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 '대련은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라고 말하면 개발구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개발구가 더 아름다운데요'라고 대답한다. 개발구에서 대련기차역까지 운행하는 소형버스는 승객들을 호객하면서 '기차역가실 분'을 부르지 않고 '대련가실 분'을 부른다. 그러니까, 나는 중국에 머물던 2년 동안 사실은 대련에 살았던 게 아니라 '개발구'에 살았던 셈이라 하겠다.

대련 개발구는 중국의 수많은 경제기술개발구 중에서도 성공한 케이스에 속한다고 하는데, 도시 외곽에 있는 항구를 쫓아 거대한 물류창고들이 들어서 있는 가운데에는 가장 먼저 현대나 삼성의 컨테이너들이 보인다. 삼성 핸드폰이 중국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핸드폰이라는 것은 새삼스레 말할 것도 못하고, 티브이 채널을 돌리면 어김없이 한국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말할 것은 못 된다. 그런데도 외국에 나와 있으면 느닷없게도 애국자가 되는 법, 그 새삼스럽지 않은 것들이 새삼스러운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일산과 개발구의 같으면서 다른 점들은 여행자이면서 여행자가 아닌 나를 때로는 흥분시키고, 때로는 안도하게 한다. 거의 같은 시기에 건설되기 시작한 이 두 신도시들은 자로 잰 듯이 구획되어 있고, 송두리째 새 것들로 채워져 있으며, 가급적

기를 써서 세련된 티를 내고자 한다는 점에 모두 공통점을 보인다. 개발구는 일산이 서울에 비해 그런 것처럼 더 깨끗하고, 더 친환경적이며, 더 여유롭다. 일산에 정발산이 있는 것처럼 개발구에는 페이디예산이 있고, 일산에 호수가 있는 것처럼 개발구에는 바다가 있다. 건설되기 시작한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무언가가 끝없이 건설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산과 개발구는 다르지 않다. 재미있는 것은 일산과는 달리 개발구는 건설되는 만큼 비워진다는 것이다. 아마도 과열된 경기의 영향이겠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넘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예컨대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중인 개발구에는 이미 비어있는 건물들이 넘치도록 많다. 빈 아파트, 빈 단독주택, 빈 빌딩, 빈 호텔, 빈 은행건물, 등등. (심지어 우리 집 근처에는 25층짜리 쌍둥이 호텔빌딩이 빈 채로 허물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 건설이 진행될 수록 빈 집은 더욱 많아진다는 소리가 된다. 그럼에도 개발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건물들의 외형에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고층아파트들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대개는 저층 아파트인 개발구의 아파트 단지들은 어느 하나 같은 모양인 게 없다. 단지가 단지마다 다르고 아파트가 아파트마다 다르다. 일산의 아파트들이 비좁은 성냥갑처럼 천편일률이라 호수나 산 쪽으로가 아니라면 눈 둘 데가 없는 것에 반해 개발구는 건물자체가 볼만하다. 낡은 것은 낡은 데로, 새로운 것은 새로운 데로.

아니, 실은 낡은 것이 보다 더 아름답다. 계획속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해 허물어져가는 것, 그 공터에 쌓인 쓰레기들, 바람이 불면 아무렇게나 날아다니는 쓰레기 저편으로 그러나 아름다운 노을과 건물들…… 나는 어쩐지 그것이 도시의 숨통처럼 여겨진다. 내가 일산과 같으면서도, 또한 이렇게 다른 개발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이다.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는 2회에 걸쳐 2/4분기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최, 상임위 및 특별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고양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개의 안건이 처리되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각 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살펴본다.

고양시의회 2/4분기 회의 일정표

회 차	기 간
제 108 회 정례회	7. 5 ~ 7. 15
제 109 회 임시회	9. 21 ~ 9. 2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재황/간사:이영훈/위원:강태희 김달수 김태임 김혜련 나공열 박종기 이창원

지난 7월 6일 열린 제 108 회 정례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 예산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또한, 7월 7일에 열린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2005 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다. 『2004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서 예산액은 19억 8,413 만 7천원으로서 세출 결산액은 19 억 2,706 만 8 천원이고 불용액은 5,706만 8천원이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액은 14 억 6,386만 8천원으로 1 회 추경대비 740 만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지방의회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였다.

9월 14일 열린 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 109 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 처리하였으며, 지방의원 회기 수당 지급범위에 관한 규정이 기존 70,000 원 이내에서 100,000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는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였다.





또한, 9월 30일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리는 2005 경기북부지역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공공부문과 기업체의 노인일자리 창출 및 인력 채용을 유도하여 취업 희망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양시의회 노인취업부수”를 마련 운영키로 하였다.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위원장:양효석/간사:김태임/위원:강영모 길종성 나공열 박순배 엄기창 이봉운 이영훈 정윤섭 조문환

정례회에서는 한국국제전시장지가 법정동으로 일산동구의 장항동, 일산서구의 대화동, 일산서구의 주엽동이 상존하는 것을 일산서구의 대화동으로 일원화하여 한국국제전시장 시설 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고양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하수도 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재지를 일산서구 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임시회에서는 일산 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법정동이 풍동과 중산동으로 되어있는 것을 중산동으로 일원화시켜 택지개발 완료 후 주민들의 주소 표기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고양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한편,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도내동 폐기물 매립장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처리를 보류시켰다.

그 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처리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 간사: 김혜련 / 위원: 김정무 김현중 박운수 박종기 배철호 심규현 이택기



정례회에서는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과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지난 9월 6일에는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소속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 소득 지원기금 폐지와 친환경 도시건설 용역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조례 폐지시 저소득층 농어민을 위한 지원이 어려

워 지원조건, 연대보증인 보험증권 대체 등 용자조건이 개선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친환경 도시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축사·공장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폐수와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문제 등 현실적인 사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임시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처리하였다. 한편, 『고양시 방문간호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현재 직영체제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절감방안 마련과 타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를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 간사: 김달수 / 위원: 강태희 김경태 김유임 박복남 박윤희 이건의 이창원 최성권

정례회에서는 철도건널목 관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철도시설물 관리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자로 위탁 관리하는 『철도건널목 관리의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과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였다. 지난 7월 27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소속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내 소·중·대규모 집단취락의 해제조정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소위원회 심의결





과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서로부터 보고 받았으며,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시민의 재산과 행사에 밀접하고 다수의 주민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답사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구제방안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시회에서는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관리지역의 세분계획안에 대한 불합리성 및 오류 등을 지적하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공람을 좀 더 실시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한 후 다시 상정 할 것을 주문하였다. 『지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대규모 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어린이놀이터·노인정·의료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등 도시기능이 조화될 수 있는 공영개발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하였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지구계 설정에 관한 사항, 교통 및 환경에 관한 사항, 지구지정 도로·공원·오페수 처리시설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비 확보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 외, 『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등 3건의 안전에 대하여도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처리하였다.

고양시의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강태희/간사:김달수/위원:김범수 김정무 나공열 박복남 박윤수 엄기창 이영훈

지난 8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과 시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 집행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 집단취락 우선 해제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을 위한 제반절차에 따른 그간의 추진상황 및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별, 현안별로 해제조정계획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우선해제지역이 조기에 해제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등 생활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우선해제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시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기 추진에 따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기 추진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모 / 간사: 김혜련 / 위원: 강태희 박복남 박윤수 박윤희 이택기 정윤섭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례회에서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감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친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보면 예산현액은 1조 1,421 억원으로서 년도별로 소폭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 765 억원인 7.1% 증가하였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483 억원으로서 재정 규모 증가와 비례하여 전년대비 4.4%인 481 억원이 증가하였다. 세출 결산액은 8,226 억원으로 전년대비 1,450 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세입증가율 보다 월등히 높은 21.3%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이월액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월은 1,950 억원으로 전년대비 24.3%인 625 억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대형사업들이 점차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58 억원으로써 74.8%인 941 억원이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항이 되었다.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예산이 미집행하는 사례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면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은 9개 사업 분야에서 23건에 대하여 지출되었다.

지출결정액은 11억 4,244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10억 9,747만 1,020원으로 불용액은 4,497만 4,980원이고 불용액 비율은 3.9%이다. 예비비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나,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의 의존하는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용은 발생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상임위원 예비심사를 거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 내시에 따라 보조사업예산을 보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총 예산규모는 8,478억 7,328만원으로서 1회 추경대비 4.9%인 419억 1,678만원을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036억 3,020만원으로 7.2%인 37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42억 4,308만원으로 1.8%인 43억 510만원이 증액되었다.



김 혜 련
(화정2동)

책임지기 위한 정당공천? 차라리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을 도입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자질 없는 지방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그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 혹은 단체장을 정당에서 책임진 적이 있었는지, 오히려 그들을 감싸 안고, 비호해주는 것이 기성정당이 아니었던가.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그 많은 지방의원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당공천 도입이 지방의원을 책임지는 것 때문이라면, 차라리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서 지방의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소환을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 많은 여성후보들을 보았다. 이런 현상이 기초의원에게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여성후보 강제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성의원의 확대는 지금 수준 이상으로 가능할 것이라 볼 수 없다.

중선거구제 - 그들만의 돈 선거

지방의원 정당공천과 함께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비용부담은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 2~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다. 중선거구제는 인구 2만~5만 선거구에서 최소 5만~10만 이상의 선거구로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지난번 선거에서 천만원 정도 썼다면, 내년 선거에서는 최소 삼천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나 선거비용 보존을

위한 유효득표율 기준은 기존 소선거구제의 기준인 15%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중선거구제에서 15%면 당선가능 득표율이다) 이 기준이 유지된다면, 선거비용을 보존받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또한 정치신인을 위해서 선거운동기간을 60일로 늘려 놓음과 동시에 개인 홍보물을 1회, 2만부에 한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기간에 사용한 비용은 보존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재력있는 그들만의 돈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상상력에 지역정치를 맡기자

지난 선거에는 지역과 마을을 바꾸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와 지지로 여성의원의 당선이 가능하였다. “다”번과 “라”번의 기호로도 당선되었던 여성의원들이 있었다.

하지만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풀뿌리 조직들의 선거 참여는 물론이고 당선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지방의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이뤄놓은 지역의 풀뿌리 조직들의 지역정치 참여의 실험과 결과물들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당의 보수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지역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의 영역을 생활의 영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중앙 정치인들에게 외치고 싶다. 정치적 상상력에 지역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직 당신들 뿐 이라고.

말



김 달 수
(화정1동)

문화와 환경에 적극적인 투자를

바야흐로 환경과 문화의 시대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에서 문화 콘텐츠의 빈곤에 시달리고 시민문화활동의 일상성 회복에 실패하고 있다. 문화시설, 혹은 랜드마크형 대규모 공간 건축 위주의 전시행정 탓이다. 우리시도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기능과 택지(주거시설)개발 위주의 급조된 신도시인데다, 시설건축 위주의 문화정책으로 인해 역동적인 문화활동의 중심점이 될 다양한 형태의 문화콘텐츠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행주문화제를 비롯해 몇몇 전통축제가 있지만, 지역민의 공동체의식이나 자긍심 고취, 문화산업, 혹은 문화관광 상품으로서의 기능, 지역문화활동의 총화로서의 기능까지 기대하기에 아직은 역부족이다. 또한 민간 주도의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도 열악한 재정환경과 이러저러한 공간적 제약 때문에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넘치는 인프라에 콘텐츠를 채우자

우리시에는 덕양어울림누리, 일산아람누리 등 과잉이라고 할만큼 충분한 문화시설 인프라를 갖고 있다. 또한 일산 라페스타 거리, 덕이동 패션거리, SBS, MBC 방송센터, 노래하는 분수대, 차이나타운, 한류우드 등 문화자원이 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테마존들이 산재해 있다. 이런 공간들이 콘텐츠와 일정한 문화적 브랜드를 가지고 긴밀하게 네트워크 한다면, 문화도시의 핵심 자

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태관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생태관광협회에 따르면 전체 관광산업이 매년 7%씩 성장할 때, 생태관광은 20%씩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전체 관광객의 60%가 자연을 경험하고 즐기기를 위해서라고 관광한다는 조사보고서도 있다.

우리시는 한강하구 버드나무 군락지와 철새도래지 등을 세계에 내세울 만한 뛰어난 자연생태자원을 가지고 있다. 녹색과 문화가 서로에게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리적 여건이나 각종 문화, 환경 인프라의 내용으로 볼 때, 앞으로 고양시의 주요한 산업기반은 국제전시산업과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가 중심이 되는 관광문화산업이다.

문화·환경투자는 가장 안전한 보험

백남준이 말했듯이, 문화란 불확실한 선택과 도박이다. 민간 문화활동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을 주식투자처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화적 창의성과 일상성이 회복되고 시민 문화활동의 저변과 자생력이 확보된다면, 지역발전의 엄청난 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와 환경 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투자액의 몇 배로 돌려받는 가장 안전한 보장성 보험이다. 브로드웨이의 힘은 뮤지컬을 찾는 관객에게서 나오듯이, 지역문화의 발전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문화활동의 일상성 회복에 달려있다.

결식아동 점심 지원 제대로 됐나



박 윤 희
(주업1동)

지난 94년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배달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 지난여름 방학에는 식당을 지정해 식권을 이용하여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여름 방학이 끝나갈 무렵인 8월 중순, 급식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구청에서 취합한 자료(7월말)를 통해 보면, 지원 학생 1,143명 중 초등학교생 624명으로 54.6%, 중학생 289명으로 25.4%, 고등학교생 217명으로 18.9%, 미취학 아동 13명으로 1.1%로 나타났다. 이에 한 단체와 함께 식당 85곳 중 40곳을 직접 방문하고, 지원 학생의 10%인 114명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대상자의 명확한 기준, 지원방식의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첫째, 정부가 지원대상자를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가정자녀와 소년소녀가장에서 일자리가 있는 편부모가정, 빈곤가정 등으로 대폭 늘렸는데, 현재는 어떤 가정 형편의 아동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 보인다. 또한 교육청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어 미취학아동이 포함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둘째, 지정식당이 동별로 1~2곳이어서 대부분 방학 내내 한 곳을 이용하거나 20~30분씩 버스나 자전거로 이동해서 점심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대상 아동이 집중되어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도 지정식당이 1~2곳에 불과해 지역 사정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지정식당이 대부분 중국음식점이나 분식점이어서 메뉴가 식상해 이용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셋째, 편법 이용의 사례도 나타났다. 아동으로부터 식권을 산 어른이 한꺼번에 이용하거나, 아동

의 부모들이 고기와 술을 이용하는 경우, 가족 전체가 동시에 모두 이용하는 경우, 큰 아이들에게 뺏겨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 등의 사례를 발견했다.

넷째, 다수의 학생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자장면, 피자 등을 먹는 것에 대해 만족해했으나,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이라 식권 이용을 통해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 나머지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개학 이후에도 아침식사나 공휴일 지원 등으로 계속된다고 한다. 결식아동 지원 정책의 보완책으로 첫째, 지원 대상자 선정에 납득할 만한 기준을 설정하고, 미취학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결식아동에 대한 개별 지원도 하지만 가족 복지 속에서 결식아동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둘째, 식권으로 지원 방식을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의 형편에 따라 식당을 찾아 점심을 먹지 못하는 미취학아동이나 초등 저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식당을 다양화해서 집 가까이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또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식지원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현재의 지원 방식은 복지사가 개입되지 않고 행정지원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신적 측면의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돌봄이 필요한데 인력의 문제라면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결식아동의 돌봄이 병행되어야 결식아동 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재황
(성서2동)

다시 흐르는 청계천

청계천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1937년 청계천이 처음 복개를 시작한 지 68년 만에 청계천에 다시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고도성장과 산업화의 상징으로 간주됐던 복개된 청계천이 이제 다시금 그 복개물들을 거두어 내고 예전 상태로의 복원을 추구한 것이다.

물이 흐르면서부터 물고기와 곤충과 새들이 돌아오고, 바람길도 다시 뚫리면서 서울전체의 기온이 3.6도나 내려가고 공기도 좋아져 암 발생률도 낮아진다는 보고도 뒤따른다. 복개물들에 가려졌던 서울의 오랜 문화재들도 비록 원형복구에 못 미친 부분이 있다 해도 다시금 햇빛을 보게 되었다. 청계천 뿐이 아니다. 마천, 오금, 풍납동을 지나는 성내천이나 강남구와 송파구의 경계를 이루는 탄천, 양재동의 양재천 등이 이미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하천으로 다시 태어났거나 그렇게 되려고 추진 중에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어서 유수의 선진국들도 그간의 고도성장과 개발과정에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실정에 있다. 얼마 전 일본 시찰에서 보고 온 산호세시 하천을 녹지공간으로 개발하여 많은 시민들의 즐겨찾는 명소로 탈바꿈한 모습은 이러한 좋은 예이다. 요즘은 시부야천 살리기에 나서 청계천을 모델로 기술을 사가겠다고 나서기까지 하는 모양이다.

다시 흐르는 청계천은 긍정적 측면 외에 부정적 시각도 상당히 아우르고 있다. 상류 발원지

의 물이 흘러 든 게 아니고 한강물을 역류시켜 자연을 거스르는 하천이라는 한계성과 장마철에 발생 가능한 준 범람 상태 시에 노정될 수 있는 위험, 개천의 구조물이 콘크리이트에 의해 조성되었기에 생태계복원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그 중의 큰 줄기일 것이다. 아울러 예정돼 있는 청계천 주변의 재개발 시 지금보다도 더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게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한 우려를 예상케 한다.

곡릉천, 창릉천을 시민의 쉼터로

60년 가까이 흐르지 않던, 이미 바짝 말라버린 개천을 불과 2년 3개월 만에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복구개발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현재의 상태를 미완이라고 평가했다면 아마도 차후에 관리유지 뿐 아니라 완벽한 복원을 위한 공사도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 이처럼 한번 훼손된 자연은 다시 복원하는데 있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의 외곽을 흐르는 곡릉천이나 창릉천은 오랫동안 시민들의 쉼터로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서 그 쓰임이 유지되어 왔다. 현재로서는 그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정도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지금도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양의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지금 상태에서 유지하고 관리하며 최상의 수질로 변화시키는 데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하수나 공업용수의 효과적 관리가 뒤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커다란 자원의 손실과 다시 복원하기 위한 엄청난 대가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왜 철새정치인이라 하는가?

제15대 국회에서 한국유권자연합이 선정한 국회의정활동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제16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1위와 시민단체로부터는 국회의정활동 최우수상을 수상한 추미애 전 국회의원을 생각해본다.

그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다. 필자는 추의원과는 일면식도 없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

지금도 특정 정당에만 공천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는 무조건 “당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모두가 곱씹어봐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원활동에 있어서 의정활동 최우수상은 그야말로 꽃 중의 꽃이다. 한국유권자연합과 시민단체가 주는 상이라 더욱더 의미가 있고 국회의원 모두가 꿈같이 그리는 큰상 아닌가?

시민들이 깨어 올바른 주권행사를 해야

그러나 현실은 그를 외면했다. 지금의 정치현실을 되돌아보자.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밤잠 설쳐가며 열심히 일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으면 무엇하나, 정당이 맘에 안 든다고 주민이 외면하는 것을...

지금 소속해있는 당을 버리고 인기 있는 당에 입당하면 당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떨어질 것이 뻔한 인기 없는 당에 그대로 앉아있는 의원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바랄까?

이제 시민의식이 바뀌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장을 찾아 방문

하고 늦은 밤까지 자료를 찾아 헤매며, 지역과 시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지방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제 시민들이 깨어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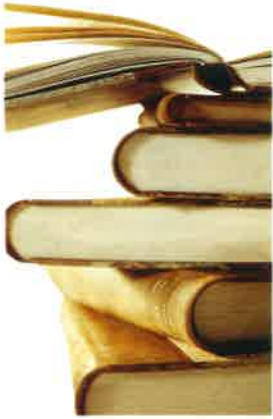
지금처럼 인기 있는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하니까 싸늘이 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후보의 인물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당만 지지를 하니까 지금과 같은 망국적인 선거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정당정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정치풍토가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국민이 깨어 올바른 주권을 행사한다면 그 어떤 정당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최 경 식
(행신1동)





애들아 ~ 놀러가자, 도서관으로

책 냄새 가득한 도서관 구석에 앉아 있으면 세상이 다 천국이다. 어릴 때의 책 한 권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지 않았는가. 커다란 규모의 시립도서관으로부터 작은 사랑방 같은 아늑한 사설도서관들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고양시 전체의 시립도서관은 마두, 백석, 행신, 원당, 화정 도서관 이렇게 5개가 있으며, 2007년 6월경에는 대화와 중산 시립도서관이 개관될 예정.

마두 도서관 (031-907-1929)

일산구 마두 1동에 위치한 이곳은 시립도서관의 본점. 10월 중엔 다독자 시상식과 기적의 도서관 학습법 저자의 강좌 행사가 있다. 비정기적으로 글쓰기 교실이나 종이접기 강좌가 진행 중.

백석 도서관 (031-961-3334)

일산구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 목요일엔 유치부 아이들의 책 읽기 행사와 지하에 있는 “내가 만드는 파란마음”이란 특별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는 과학관이 있는데, 태양열에너지, 레이저 핀볼게임 등 아이들이 직접 조작할 수 있어 흥미롭다. 월~금요일까지 개방한다. 비정기적으로 인형극이나 부모역할훈련, 역사문화 강좌 프로그램이 있다.

화정 도서관 (031-961-3337)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하며, 비정기적으로 글쓰기 교실과 종이접기 강좌가 있다. 유아들을 위한 별실이 있어 부모가 책을 소리내서 읽어줄 수 있다.

행신 도서관 (031-961-2650)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하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학부모교실이나 사서삼경 등의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비교적 아이들 책이 많이 구비되어 있고, 주변에 공원이 있어 아이들과 산책하기에도 그만이다.



마두도서관



백석도서관



화정도서관



행신도서관



원당도서관

원당 도서관 (031-961-3325)

덕양구 성사동에 위치한 원당 도서관은 비정기적으로 독후감상화 그리기, 책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열람방법

열람증은 초등학교생 및 만 5세 이상 어린이는 반명함 사진과 신분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어느 도서관에서든 한번 만든 열람증은 시립도서관 5곳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 단 책 반납은 반드시 빌린 곳에 내야 한다.

* 휴관일 안내

첫째, 셋째 월요일 - 행신, 원당, 백석 도서관
둘째, 넷째 월요일 - 화정, 마두 도서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단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

* 개방시간: 일반열람실 : 08:00 ~ 22:00
자료열람실 : 09:00 ~ 18:00

* 정기강좌: 여름, 겨울 독서교실

- (공통) ·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유치원 대상)
· 영화상영 (매주수요일 오후 3시 마두, 백석, 화정)
· 저자와의 만남 등

고양시 사설 어린이 도서관

도서관명	전화번호	개관시간	위 치	운 영 내 용
강아지동	975-0182	13:00 - 18:00	일산 2동	체험놀이교실
꿈꾸는동화나라	913-7924	10:00 - 17:00	대 화 동	동화구연, 미술
지혜나라	916-0709	11:00 - 17:00	대 화 동	바둑, 카프라등
도토리미디어	914-1394	12:00 - 19:00	대 화 동	멀디미디어센터
동넉작은도서관	903-2768	13:00 - 18:00	백 석 동	공부방 운영
화정동화나라	968-7070	13:00 - 18:00	화 정 동	역사, 독서교실
숲속작은도서관	915-3004	10:00 - 18:00	정발저동초교앞	북아트, 미디어
웃 는 책	914-9279	12:00 - 19:00	대 화 동	모듬교육활동
새 하 늘	921-3493	13:00 - 18:00	탄 현 동	각종음악교실
푸 른 꿈	917-2768	13:00 - 18:00	일산3동후곡마을	통합놀이교육
꿀꺽어린이도서	908-9555	13:00 - 19:00	풍동백마부대앞	요리교실예정



·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 11월경 주엽, 행신, 화정 어린이도서관이 개관 될 예정입니다.

명예기자 손미경 prettysmk@yahoo.co.kr

고양시의회 채택 결의안



고양시의회는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 예측구조를 심화시키는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철폐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심을 갖고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4분기 고양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내용을 통해 고양시의회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본다.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



예비군 훈련장의 주변은 고양시 여건변화로 인해 일대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모하여, 지역 주민과 언론으로부터 예비군 훈련장의 외곽 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고양 농수산물 센터가 바로 옆에 위치하여 일일 1만 5천명의 유동인구가 예비군 훈련장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고양 종합운동장이 있어 경기가 있을 때는 수만명이 일시에 훈련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예비군 훈련장 주변으로 야구장이 현존하고 있고, 향후 정식으로 야구장 건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버스 공용 차고지와 화물주차장 터미널 부지가 계획되어 있다. 최근에는 인접한 곳에 국제전시장까지 개장을 하여 1백만이 넘는 유동인구가 다녀갔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에서는 작년 10월, 1 군단에 예비군 훈련장 대체 부지를 선정해 이를 검토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1 군단에서는

“공간이 협소”하고 “전투진지”가 구축되어 있어 시의 제안 수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주민들의 이전 요구는 그 해결책이 요원해졌다. 고양시는 고양시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서로에게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를 떠넘기는 형식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만 없다. 이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고자 이미 수천명의 서명을 받아 이전 촉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지가 단순한 이전요구에서 점차 원망으로 바뀌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의회는 국방부에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이전 의지와 실천행동을 좀 더 분명하게 해줄 것을 촉구한다.

고양시의회는 국방부가 ‘국방부의 입장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을 하루 빨리 이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년 7월 15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집회 (국회의사당 2005. 10. 13)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6월의 마지막 날 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10년 역사가 송두리째 부정되었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 전면 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대폭 감축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국회는 또 기초의원 유급제를 추진하되 그 정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한다. 머리와 몸통은 비대해지는데, 흙속을 파고들며 양분을 빨아들이는 풀뿌리만 왕창 쳐내겠다는 것이다. 생활정치 영역의 대표성을 대폭 줄이겠다는 이 기형적인 정치구조는 분권과 자치,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은 정치적 상상력과 다양한 정책들의 실험장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각양각색의 정책들이 싹트는 민주주의의 농장이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것은, 패권적 양당구도와 중앙의 획일적인 정치구조를 지역에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풀뿌리 생활정치와 주민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기존 정당들은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면서도 차별적인 지역정책과 대안적 가치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공천한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의 부정부패, 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동안 지역에서 정당의 책임정치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무책임한 것이었다.

우리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 예측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존 정당들의 나뉜 먹기식 밀실야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 등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 선택권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과감한 분권과 자치권 보장만이, 보다 확대된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이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모든 예산심사를 거부할 것이며, 전국의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국회의 음모에 맞서 공동행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2005년 7월 6일

정례회 및 임시회 안건처리



정례회 및 임시회를 통하여 처리된 안건은 조례안 18건,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 6건, 기타 6건으로 총 33건. 이들 안건 중 시민이 알아야 할 주요안건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자 치 행 정 위 원 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덕양구 주교동 소재 주교 1 경로당과 주교 3 경로당이 '90 년과 '92 년에 가건물로 설치되었으나 시설물의 노후화로 개·보수비용이 급증하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는 실정. 따라서, 철거하여 경로당을 재건축함으로써, 노인 보건 복지 증진에 기여함.
- 시청 조직의 확대로 사무실이 부족하여 본관 3층 옥상에 경량건축물을 증축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함.



소 관 부 서	위 임 사 무	비 고
문화관광담당관	모범유통관련업자 지원	추 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개정)
교통지도과	중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등록 업무	추 가(자동차관리법개정)
환경보호과	상수원보호 구역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삭 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업무 일원화)
	악취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 설(악취방지법개정)
청 소 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추 가(사무내용의 구체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추 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사무의 내용이 세분화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구체화하여 업무추진에 정확성을 기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

가 및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구·동 체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시 단위에 사회복지 업무를 종합기획·조정·관장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사회복지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자 함.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화센터의 명칭변경에 따라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덕양문화센터를 덕양어울림누리(고양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어울림미술관, 고양별따기배움터, 꽃메놀이터)로 변경하고, 문예회관 운영을 일산아람누리(한메아람극장, 한메바람피리음악당, 새라새극장, 노루목야외극장, 한메해반이터)의 관리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함.

통·반 조정 내역

구 분	현 행		증 감		조 정		통·반 분리사유
	통	반	통	반	통	반	
덕양구 행신1동	26	208	-	+1	26	209	· 행신1차 에스케이뷰아파트 812세대
일산동구 중산동	30	300	-	+1	30	301	· 일산2지구조성에 따른 편입지역 통·반 일부조정
일산동구 봉산동	20	127	-	-	20	127	"
일산서구 탄현동	35	314	+1	+6	36	320	· 쌍용아파트 232세대 ('05.10 월중 입주완료)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일산2택지개발지구의 행정동을 중산동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통·반을 재조정하고, 행신1동 관할구역 내 아파트 재건축 및 탄현동 관할구역

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 입주로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의 증진과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사 회 산 업 위 원 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변경. 또 회의의 투명성과 참여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 결과를 녹음하고, 회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 산업단지 등 조성,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자동집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퇴비화사료화시설, 집하시설의 규모 및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기준을 규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하고, 타 지역 폐기물 반입시 반입수수료 외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도 시 건 설 위 원 회



지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덕양구 지축동 일원 35만평에 5,870세대 17,610 인 수용규모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다음 의견을 채택함.

1. 광역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토지이용계획이 주변 은평 뉴타운, 삼송 택지개발 지구와 연계되어 개발
2. 임야 지형을 그대로 살리는 개발계획 수립 및 이주대책과 세입자 대책 수립
3. 개발지구내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지축기지창 이전을 검토
4. 창릉천을 청계천과 같이 환경친화적으로 활용
5.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참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주교동 645-1, 성사동 73, 성사동 75번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요청안 의견청취의 건

· 덕양구 주교동 645-1 번지 일원 73,739 평방미터(22,306 평)에 소재한 주공 1 단지 공동주택과 성사동 715 번지 일원 86,394 평방미터(26,134 평)에 소재한 주공 2 단지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 조에 근거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거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다음 의견을 채택함.

1. 원당 일대의 주거환경정비계획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공 1, 2 단지의 용적률을 결정
2.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한 분석안을 제시
3. 주공 2 단지의 경우 성사근린공원과 일정거리 확보 방안 마련
4. 원당초교 앞 육교설치 및 지현고교 일조권을 검토

경의선 개통

경의선 복선전철 2007년 말 개통 예정

그동안 중단했던 경의선 복선전철사업은 올 7월, 시민단체와 협상이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07년 말까지 조기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건설교통부는 경의선 복선전철사업구간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시민단체의 지하화건설요구 등 각종 민원체기로 그동안 원만한 사업시공이 어려웠던 경의선 복선전철사업이 관련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 본격적인 사업추진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고양시 통과구간 중 백마~탄현 구간 6.5km 지역은 지하화 건설을 요구했고, 화정역 인접 사업구간 내에 위치한 군부대와 항공대학 소유 격납고 이전을 주장해 공사착공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작년 6월 30일 강현석 고양시장의 시민단체의 지하화 건설요구에 대해서는 지역 양분방지와 친환경적 녹지공간 확보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경의선 지상화건설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여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

군부대와 항공대학 소유 격납고는 관련법규에 따라 이전비 지급을 조건으로 격납고를 철거하기로 합의,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한 노반공사(전체공정 60% 점유)부터 우선 착공하기로 합의하여 경의선 복선전철사업은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의선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07년 말까지 조기 개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기획예산처와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추가 예산 협의를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는 고양시 및 시민단체와 지역양분 방지와 친환경적 녹지공간 확보,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하차도 등 세부설계 협의 등을 계속 추진하여 올 7월초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낸 것이다. 주요협의 내용은 강매역 준치 및 역사 설치요구, 노지대·생태공원 2개소 조성, 전구간 오픈터널식, 밀폐형 방음벽 2km 설치 등이다. 이중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전 구간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결과에 따라 방음시설계획은 연말 안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의선 복선전철이 우리시를 경유하는 구간은 18.03km이며, 개통되어 6~8분 간격으로 운행할 경우 현재 철도 1일 이용객수 2만 9천명에서 2013년이면 1일 28만 1천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

복선전철화 사업은 말 그대로 그동안 단선철도로 운행하고 있는 경의선(용산~문산)에 철도를 하나 더 건설하여 복선전철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각종개발 사업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교통 혼잡을 보이고 있는 고양시와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 서북부 지역과 서울지역간의 대중교통난을 해결하고자 계획된 사업인 것이다.

경의선은 2007년 말 성산~문산까지의 39.6km 구간을 우선 개통하여, 대곡역에서 서울지하철 3호선, 성산역에서 6호선으로 환승 이용토록 할 계획이며 모든 역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전철이용 시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시각장애인 유도블럭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의선 중 나머지 성산~용산구간(경의선과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복층 공사구간)은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와 연계, 시공할 계획이다.

성산~문산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서울 성산(수색)에서 경기 문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출·퇴근시 버스기준 1시간 40분)보다 50분 이상 단축되어 경기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의선 복선전철이 우리시를 경유하는 구간은 18.03km이며, 개통되어 6~8분 간격으로 운행할 경우 현재 철도 이용객수 1일 2만 9천명에서 2013년이면 1일 28만 1천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공사는 탄현구간, 일산 동골 지하차도, 마포과 선교 3개소와 임시철도시설을 위한 특수선을 설치하고 있는 등 전면적인 노반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고양시 교통행정과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행신-능곡-대곡-곡산-백마-풍산-일산-탄현 등의 역사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1년 3~6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전면적인 공사가 불가피한 내년에는 일부 녹지공간의 훼손, 교통정체가 예상되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고양시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양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성산~문산까지를 우선 개통할 예정

김미정 편집위원 mj-nh-cy@hanmail.net



권 봉 원 의장
(원신·흥도동)

- 8월 26일 여성복지회관에서 열린 제2차 여성사회교육 수료식 및 제3차 개강식에 참석,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9월 2일 고양국제꽃박람회회장에서 열린 고양현대미술제에 참석, 시민 모두가 예술의 삶과 가치를 통하여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9월 13일 일산소방서 개청식에 참석,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각종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구급 활동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였다.



박 순 배 부의장 (교양동)

- 9월 25일 행신볼링센터에서 열린 '제7회 고양시의회 의장배 볼링대회'에 참석, 관계자 및 선수단을 격려하였으며, 볼링 동호인 상호간의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 10월 4일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에 참석, 주변지역의 개발촉진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될 수 있도록 도로건설을 위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적이며 기술적으로 타당한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강 태 희 의원 (신도동)

- 8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고양시의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에 참석,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기 추진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시에 당부하였다.
- 9월 9일 신도·화전 농촌지도자 대회에 참석,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수산물 개방압력 등으로 어려워진 농촌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 9월 11일 고봉동 7통 마을회관에서 열린 고봉동진발두레 패무형문화재지정 현판식에 참석, 관계자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잊혀져 가는 지역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길 종 성 의원 (탄현동)

- 8월 1일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산구 주민자치 위원 교육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 주민자치위원을 격려하였다.
- 8월 2일 탄현동 큰마을 진입로 계단 준공식에 참석,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고 진입로 계단에 필요한 추가 설치물을 일산서구청에 요청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 8월 27일 중국 산둥성 위해시 경제개발구 부주임 일행과 함께 일산 라페스타거리를 방문, 문화의 거리 조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 라페스타 경영인협의회와 문화 예술 및 경제교류를 위한 조인식을 가짐으로서 고양시를 문화도시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 경 태 의원 (성사1동)

- 4월 11일 성사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그동안 학교교육환경 개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복도내 붙박이 신발장 설치, 운동장내 쉼터 설치, 학교급식개선 등을 둘러 보고 앞으로도 교육환경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7월 20일에는 새마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관내 증건빌라와 삼화빌라 3세대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통하여 땀 흘리며 봉사한 보람을 느꼈다.



김 유 임 의원 (주업2동)

- 8월 29일 고양시여성민우회 회의에 참석, 결식우려아동의 방학 중 급식 문제점에 대한 토론에서 겨울방학에는 학교의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급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마련하였다.
- 8월 30일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협의회회의에 참석, 개발 중인 삼송지구에 대해 공원비율, 복지시설, 자전거도로 배치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도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8월 31일 예산감시네트워크 회의에 참석, 내년 고양시 본 예산 편성 시 주민들이 제안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하겠다고 했다.



김 정 무 의원 (화전·대덕동)

- 9월 24일 화전동 30사단본부 운동장에서 개최한 국공립 어린이집 가족운동회에 참석,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운동회를 통하여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어린이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혜 련 의원 (화정2동)

- 10월 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5회 국제빗물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고양시에 최초로 만들어진 화정중학교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였다. 이날 발표는 화정중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의미와 빗물을 활용한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었다. 또한, 지도초등학교와 화정중학교의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의 독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박 윤 수 의원 (마두1동)

- 9월 10일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제7회 푸른고양 나눔장터에 참석, 관계자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행사를 통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 추석 연휴인 9월 17일 마두1동 관내 노인정을 방문, 노인들을 위로하였다.
- 9월 24일 제2회 고양시 자원봉사박람회에 참석, 행사에 참여한 각 사회단체들을 격려하고 메달라 가는 세태 속에서 봉사활동을 발휘하여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박 윤 희 의원 (주업1동)

- 9월 6일 천안 YMCA 초청으로 천안에서 미래여성 정치 교육 모더레이터 양성과정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생활 정치 의제 찾기'란 주제로 강의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 9월 14일 고양시인력개발센터 파티플래너 과정 4기 수료식에 참석, 새로운 파티플래너로 출발하는 여성들을 격려했다.
- 9월 29일 킨텍스와 고양시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주선, 킨텍스와 지역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양 효 석 의원 (효자동)

- 지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7월 29일 공고됨에 따라 8월 1일 한국토지개발공사 주최로 효자동 복지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 수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8월 10일 효자3동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현장조사에 참석, 생활하수가 창릉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생활하수관을 설치할 것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9월 6일 태풍을 대비하여 관내 순찰을 통해, 화훼농가의 비닐하우스 붕괴와 석축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조치를 요구하여 주민불편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 건 익 의원 (장항 1·2동)

- 7월 22일 대장천교에서 열린 풍수해대비 훈련에 참석한 주민과 단체에 대하여 격려를 하였으며,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9월 5일 대한적십자사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사랑의 릴레이 행사에 대한적십자사 고양지회 장항봉사회 회원으로 참석, 지체부자유 노인을 휠체어로 호수공원을 산책시키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 9월 12일 대한노인회 일산구지회 장항분회 현판식에 참석, 장항동분회의 발전과 노인회의 그간 노고를 치하하였다.
- 9월 15일 관내 문화의 거리에서 통장 등 주민들과 함께 대청소를 실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다.



이 재 황 의원(성사 2동)

- 9월 30일 덕양어울림누리 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아 친선 좌식배구대회에 참석, 대회 관계자를 격려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무는 계기를 마련하고 스포츠 교류 증진을 통하여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창 원 의원 (일산1동)

- 9월 8일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주관, 일산1동, 일산2동, 중산동, 탄현동, 고봉동 각 사회단체 및 동사무소의 후원으로 열린 장애인 및 재가복지 차량 구입을 위한 일일차집 행사에 참석,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 9월 9일 일산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준공식에 참석, 많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양질의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9월 9일 새고양로타리클럽의 3대 회장 자격으로 회원들과 함께 소년소녀가장에게 쌀과 반찬, 라면 등 식표품과 금일 봉을 전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이택기 의원 (주교동)

- 9월 9일 주민자치위원들과 주교동 관내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박충원 묘소를 비롯한 대결약수터, 마상골, 비호정 등을 둘러보았다. 이번 답사는 도시화의 물결속에 옛 모습을 알 수 없는 자연촌락 이름의 역사와 유래 등이 담긴 "배다리이야기"라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9월 15일 바르게살기위원들과 함께 덕양구 향동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천사의 집을 방문, 헌옷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화장실 청소 등 주변환경을 정리하였으며, 원생들을 위로하였다.



정운섭 의원 (행신2동)

- 9월 1일 능곡중학교에서 열린 개교 50주년 기념식 및 토당제에 참석, 관계자를 격려하고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전통의 학교로서 더욱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9월 10일 용현초등학교 운동회에 참석, 그간 학교운영 및 발전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 9월 12일 백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협의회 고양시협의회 간사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조문환 의원 (고봉동)

-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일본 주민자치 운영 실태에 따른 비교 시찰을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선진국의 운영실태를 직접 견학, 우리 실정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루어졌다.



최경식 의원 (행신1동)

- 9월 7일 행신1동의 숙원사업인 시립어린이집과 주차장, 노인정 유치를 위해 통장을 비롯한 관내 주민들과 1천명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유흥지로 있던 산림청 부지를 시에서 공공용지로 매입하기로 최종 합의가 되어, 우선적으로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하여 어린이집과 노인정에 대하여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최성권 의원 (일산2동)

-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시청 현관로비에서 고봉산 주변 일산2지구택지개발내(C-1지구)의 습지를 살리기 위한 단식투쟁을 통하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 9월 28일 고봉산 헬기장에서 고봉산 철탑 철거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켜 고봉산 정상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천자문은 내친구



- 기간: 11월 5일 ~ 11월 26일
- 미취학 아동:매주 토요일 오전 10:00~12:00, 초등학교 1~4학년:매주 토요일 오후 03:00 ~ 05:00
- 대상: 미취학 아동 6,7세 1개 반

- 25명, 초등학교 1~4학년 1개반 35명
- 장소:고양어울림미술관
- 참가비:미취학 아동 5만원, 초등학교 1~4학년 6만원
- 강좌내용: 11월 5일:〈하늘천따지〉展 관람하기, 한자를 추상화하여 이미지 만들기 - 김은하/동양화가
- 11월 12일: 도자기에 붓글씨와 문자를 주제로 드로잉하기 - 유병록/도예가
- 11월 19일: 종이죽을 이용한 탁본 수목화 그리기 - 변복규/동양화가
- 11월 22일: 책과 문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옛날과 오늘날의 책들을 감상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책 만들기 - 박유진/북아트 작가

동양의 문화와 서예

- 기간: 11월 10일 ~ 12월 15일, 매주 목요일 오후 7:00 - 9:00
- 대상: 일반인 100여명
- 장소: 고양어울림미술관
- 참가비: 3만원, 1회 강좌 7,000원 / 첫 강의 무료공개강좌
- 강좌내용
- 11월 10일: 문자학 1- 청범(淸凡) 진태하
- 11월 17일: 문자학 2- 청범(淸凡) 진태하
- 11월 24일: 현대인이 다시 읽는 '대학' - 청곡(淸谷) 김중희
- 12월 1일: 아름다운 '예절' 이야기 - 청곡(淸谷) 김중희
- 12월 8일: 서예를 통한 자기발견 - 노천(鰲天) 조갑녀
- 12월 15일: 취미생활에서 얻는 행복 - 노천(鰲天) 조갑녀

〈하늘천따지〉 전시회



- 기간: 10월 12일(수) ~ 11월 29일(화) 월요일 휴무
- 장소: 고양어울림미술관
- 입장료: 일반 3천원, 초중고 2천원, 미취학 아동 천원, 단체 20인 이상 50% 할인, 만 6세 이상 무료, 국가 유공자 장애우 무료

공명 콘서트

- 기간: 11월 18일(금) 오후 7:30
- 장소: 고양어울림극장
- 입장료: 일반 20,000원 / 초, 중, 고교생 15,000원
- 관람층: 8세 이상

세계의 갤러리와 미술관 영화감상

- 기간: 11월 15일 ~ 12월 20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12:00
- 대상: 일반인 100여명
- 장소: 고양어울림미술관
- 참가비: 3만원
- 강좌내용
- 11월 15일: 미국 편 - 김세준/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11월 22일: 스페인 편 - 전승보/마로니에미술관 전시팀장
- 11월 29일: 영국 편 - 하계훈/단국대학교 교수
- 12월 6일: 프랑스 편 - 김효선/ ㈜k옥션 디렉터
- 12월 13일: 일본 편 - 씨씨김/설치미술가
- 12월 20일: 그리스와 이탈리아 편 - 노성두/미술사가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 기간: 12월 28일(수) ~ 29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고양어울림극장
- 입장료: 으뜸자리 2만5천원, 좋은자리 2만원, 편한자리 1만5천원
- 관람층: 8세 이상 입장가

낮에 나온 반달



- 기간: 11월 21(월)~22(화)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 장소: 고양어울림극장
- 23(수)~25(금) 오전 10시 10분, 11시 20분, 4시
- 입장료: 일반 15,000원, 청소년 10,000원
- 관람층: 24개월 이상 입장가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 기간: 12월 17일 (토) 오후 4:00, 7:30 / 18일(일) 오후 3:00
- 장소: 고양어울림극장
- 입장료: 으뜸자리 4만5천원, 좋은자리 4만원, 편한자리 3만원, 고른자리 2만원, 가장자리 1만원
- 관람층: 5세(48개월) 이상



KBS 송년음악회

- 기간: 12월 20일 (화) 오후 7시 30분
- 장소: 고양어울림극장
- 입장료: 으뜸자리 4만원, 좋은자리 2만원, 편한자리 1만5천원
- 관람층: 8세 이상 입장가
- 특징: 2006년의 마지막을 KBS교향악단과 고양시립합창단, 의정부시립합창단이 장식한다. 20년의 작곡기간에 걸쳐 완성된 베토벤 최고의 걸작 9번 교향곡 "합창"으로 기쁨과 환희의 송구영신을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지휘/박승

덕양어울림누리에는 고양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어울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문의 및 예매처: 고양문화재단 1544-1559 www.artgy.or.kr 한글인터넷주소: 어울림누리
 ※ 높빛 사랑의자리(사랑티켓 960-9730, 9690)를 이용하면 5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옷'장만하러 한 번 찾아가 볼까?



▲ 대화역에서 금촌·송산동 이정표를 따라가면 덕이동이 나온다

주말이면 알뜰 멋쟁이들이 찾아가는 곳, 일산 덕이동 '로데오 거리'. 백화점 세일기간에는 특별히 추가할인도 해주고, 세일기간에 구입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주말이면 가족단위 쇼핑객으로 북적인다. 느긋하게 쇼핑을 하고 싶다면 평일에 가보자.

입점한 의류브랜드만 약 4백 여 개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로데오 거리'라는 명칭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스의 패션거리 '로데오 드라이브(Rodeo Drive)'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로데오 드라이브는 LA 최고의 호화 쇼핑가로서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주연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쇼핑하던 곳이다. 미국의 로데오 거리야 값비싼 명품을 파는 곳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의류 상설할인매장이 밀집된 알뜰쇼핑코스로 통한다.

일산 대화역에서 '금촌·송산동' 이정표를 따라 쪽 가다보면 덕이동 네거리가 나온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자유로 이산포 분기점(I.C)에서 직진하다가 하나로마트를 지나 좌회전하면 1km 전방에 로데오 거리가 보인다.

지난 2000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수도권 북부의 대표적인 의류상권인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2000년 3월 일산의 구도심과 신도심 중간쯤인 덕이동에 스포츠의류, 골프의류 매장 3~4개가 들어서면서 형성됐으며, 이후 패션의류 매장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2001년부터 '로데오 거리'로 불리기 시작했다. 현재 이곳에 입점한 의류 브랜드는 줄잡아 약 400여 개에 이른다. 계획적으로 조성한 곳이라 대지가 널찍하고, 보통의 로데오 거리처럼 복잡하지도 않은 것이 장점. 매장과 매장 사이의 도로가 넓고 동선도 편리해 쇼핑하기가 편하다.

국내의 대중적인 브랜드 웬만한 건 다 입점해 있으며, 청바지, 티셔츠 등 간편한 캐주얼 의

류가 많다. 아동복, 운동화 전문매장, 액세서리 전문매장 등도 성업 중이다.

한 학부모는 신학기에 장만하는 아이들 가방부터, 신발, 수영복 등 고급 브랜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이곳을 즐겨 찾는다고 한다. 10월 17일 오후 3시.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사람들이 로테오 거리에 가득하다.

“마음껏 고르세요. 조강화 한 컬레에 8천원 ~ 패션가방 하나에 1만원 ~” 점원의 목소리가 우렁차다. 한 스포츠매장 점원은 “이곳엔 중년층을 겨냥한 매장이 특히 많다”며, “골프웨어 점포만도 30 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스포츠 매장은 로테오거리 중간에 위치한다

한 달에 한 번 문화행사에 일정에 맞춰 쇼핑하면 일거양득

일부 점포는 40~70% 까지 할인 판매하는 이월상품매장.

1 년차 이상의 이월상품은 70~80% 까지 할인되며, 신상품을 판매하는 정상매장도 20% 정도의 할인 폭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 정장 한 벌은 6 만원에서 30 만원까지 가격 선택의 폭이 넓다.



▲ 70~80% 할인하는 곳도 있다

스포츠 브랜드 매장은 중간 즈음에 거리 양측으로 몰려있으며, 본사 직영점 등 대형매장이 많아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고르게 편리하다. 원하는 사이즈가 없어 수선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의류 수선집들이 많고 각 매장 앞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에 사는 주부 김혜진(33)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로테오 거리에서 알뜰쇼핑을 즐긴다”며 “유행을 타지는 않는 기본의류를 구입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귀띔해준다.

스포츠 브랜드 매장은 중간 즈음에 거리 양측으로 몰려있으며, 본사 직영점 등 대형매장이 많아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고르게 편리하다. 원하는 사이즈가 없어 수선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의류 수선집들이 많고 각 매장 앞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에 사는 주부 김혜진(33)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로테오 거리에서 알뜰쇼핑을 즐긴다”며 “유행을 타지는 않는 기본의류를 구입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귀띔해준다.

최근 이 곳에서 한 달에 한 번 문화예술 행사가 열린다.

지난 3 월 20일에 처음으로 덕이동 로테오 거리의 UFO 건물일대에서 ‘공공미술프리즘’과 ‘일상예술창작센터’와 ‘문화연대’ 등 세 단체가 주관하는 문화행사 <미(美)확인 예술장터>가 열린 것. 이 행사는 ‘덕이동 로테오거리 상인연합회’ 후원으로 열렸는데, 지역민들과 쇼핑객들이 직접 참여하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로테오거리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소비만 하던 시민들이 직접 새로운 쇼핑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며 쇼핑은 곧 피곤하다는 인식을 탈피, 쇼핑에서 즐기는 재미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한다.

내수경기는 침체되고 있지만 덕이동 로테오거리의 쇼핑열풍은 계속되고 있었다. 지금도 알뜰멋쟁이들이 북적되고 있는 이곳은 고양을 대표하는 새로운 쇼핑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명예기자 송승환 kangjincountry@hanmail.net

시민의 소리

고양의정소식지 창간호를 대하며...

조 선 화 (덕양구 화정동)

시작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심스럽게 내비친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압니다.

창간호 고양의정소식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발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시작이 앞으로 너무도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출발이라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원하는 바를 읽어낼 수 있는 현명한 눈을 가지고 정당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이야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권위를 우선하지 않고 시민들의 쓴 소리를 단 소리로 바꿀 수 있는 친숙한 의회가 되는데 고양의정소식지가 촉매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 도서관을 짓기보다 기존 시설 도서관을 지원, 활성화했으면

정 창 일 (일산서구 주엽동)

'시민의 소리'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시의회를 만드는 작은 공간입니다. 고양시의회에 전달하고 싶은 시민의 울골은 목소리를 보내주시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집부>

지금은 잠잠하지만 작년까지도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린이 도서관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때 분위기로는 곧 우리나라에 수많은 도서관이 지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물론 새로운 어린이 도서관도 많이 지어야겠지만, 그에 앞서 지금 사설로 운영되는 어린이 도서관의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지원없이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큰 도서관보다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도서관들을 지원하여 활성화 시키는 것이 비용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민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시민의 의견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께서는 E-mail이나 FAX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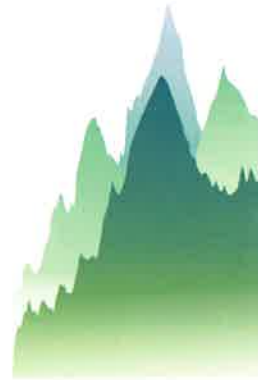
E-mail: jaewoncho@goyang.go.kr 전화: 965-5014 ~ 6, FAX: 967-8045

“별아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산으로 거듭 발전해 가기를

박 혜 원 (덕양구 행신동)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산에 오르곤 합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산은 우리 동네 별아산입니다. 원당에 넓게 조성된 덕양어울림누리 중 하나로 원당 전철역 쪽에서 오르는 길이 있고, 행신동 쪽에서는 민방위 교육장 뒤편 작은 산을 따라 걷다보면 별아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산은 온통 공사 중이었습니다. 좁은 등산로를 넓히고 가파른 언덕은 계단을 만들고 곳곳에 체육시설도 늘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녀 뿌리가 다 드러난 나무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소 길어지는 공사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는 분들은 공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셨지만 더운 여름 동안의 수고 덕분에 산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관리해주시는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깨끗한 것은 물론이고 얼마 전엔 문마다 좋은 시도 붙여 주셔서 아주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별아산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우리들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퀴즈당첨자 발표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윤 희 영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지난호 <날말퀴즈 정답> 정답

수		까					시
행	주	치	마		일	기	장
원	경			양	산		
	야				호		고
고	독				수	목	원
봉		아	내		공		
산			유	치	원		
	주	교	동				





최 성 권
(일산2동)

국토순례를 다녀 와서

8월 4일 올해도 변함없이 국토순례를 떠났다. 벌써 6년째이다. 우리 일행 13명은 새벽 7시에 일산문화광장에 모여 배운 나온 학생들의 부모님을 뒤로 하고 자동차 2대로 설악산 한계령 정상을 향해 미련없이 떠났다. 그냥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무작정 걸어오는 것이다. 11박 12일 동안 한계령, 원통, 양구, 화천, 포천, 적성, 파주를 거쳐 8월 15일 오후 3시에 이곳으로 무사히 귀환을 하는 것이 목표다. 사실 나는 이번 국토순례에 완주할 자신이 없었다. 무릎 부상으로 걷기조차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말리는 주변 사람에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하며 떠나는 것이기에 내심 두려움도 있었다. ‘아주 다리 병신이 되는 것이 아닌지?’

국토순례는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다. 어느 순간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면 옆 사람과의 대화는 물론 아름다운 조국 산천도 느낄 겨를도 없이 아스팔트 위를 한걸음 한걸음 내 딛는 로봇이 되어 버린다. 혹자는 그런 무미건조한 것을 왜 하냐고 묻는 자가 있을까?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신도 한 번 해 봐?”라고. 국토순례, 이거 한번 미치면 정치에 미친 것보다 더 재미있다. 무사히 완주한 나는 그 재미난 이야기를 네 가지로 간추려 보려 한다.

존재의 의미, 애국심,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체험

첫째, 국토순례는 나의 존재를 깨우쳐 주는 귀한 시간인 것이다. 대자연 속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작은 존재

인가! 나 잘났다고 아우성치던 내 모습에 그저 고개를 떨구게 될 뿐이다.

둘째, 국토순례는 나를 애국자로 다시 세우게 한다. 조국 산천을 걸을 수 있는 나 자신의 대견함에 용기를 얻게 되며, 그 뿌듯함에 살아 있다는 희열감을 만끽하게 된다. 그런 순간 나는 나의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자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국토순례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느끼게 한다.

셋째, 시간의 위대함이 터득된다. 8월의 뜨거운 태양열의 도전을 받으며 11박 12일 한걸음 한걸음이 모여 3백여 킬로미터를 완주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단지 언제나 하는 시간이 문제일 뿐임을 느끼게 된다. 지금 이순간,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삶은 아닌가? 시간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토순례는 시간의 위대함, 시간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자신감을 얻는다. 인간은 결코 나약하지 않다. 인간은 결코 미천한 존재만은 결코 아니다. 인간은 확실히 강인하다. 여섯번의 국토순례 중 우리 일행 어느 누구도 한순간 쓰러 질망정 포기하는 자는 단 한명도 없었음에 감사한다. 그것은 인간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밝은 내일을 보게 되는 아주 귀한 경험인 것이다. 국토순례는 나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는 위대한 스승인 것이다. 나는 이번 기회에 국토순례를 꼭 한번 해보라 권하고 싶다. 이것이 내가 국토순례를 다녀와서 제일 하고픈 이야기다.

“내년에 나랑 함께 갈 사람 연락 주이소!”

가을 건강, 따뜻한 차 한잔으로 푹!

어느새 바람은 서늘하고 가을밤은 귀뚜라미 소리로 가득하다.
일교차가 커서 쉽게 감기에 걸리는 계절 ... 직접 만든 차 한잔으로
가족들에게 따뜻함과 건강을 전하자.



감잎차

감나무의 잎을 말하며, 5~6월쯤이 영양분이 가장 많은 시기로 이때 채취한 감잎이면 더욱 좋다.

만드는 법: 감잎을 시루에 살짝 찢 후, 뜨거운 물에 적당량 담구어 우려 마신다.

효능: 감잎차는 비타민C 와 비타민 B, K 등이 함유되어 있어, 기침을 하는데 좋다. 카페인 없어 많이 마셔도 잠을 못 자 고생하는 일이 없다.

솔잎차

소나무의 잎이며, 솔잎을 그늘에서 색이 변하지 않도록 잘 말린다.

솔잎은 가루로 만들어 먹거나 끓여서 먹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가루로 만들어 먹는 방법

솔잎 600g, 땅콩 100g, 밤 50g, 현미 50g, 호도 70g 검정콩 2 홑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 수시로 물에 타서 마신다

2)끓여서 먹는 방법

솔잎을 잘게 찢어서 솔잎 100g, 감초 7g을 갈은 뒤 주머니에 담아서 물 2L 에 넣고서
15 분 정도 끓여서 마신다.

효능: 솔잎차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가 생기는 것을 막으며 항균작용이 강하므로 폐렴을 예방한다. 또 기관지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에게는 해독과 니코틴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꾸준히 복용하면 치아건강과 소화에도 좋고 피부도 윤기 나게 해 준다.

들국화차

10 월 하순에 꽃이 만발할 때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은 후에 물기를 없애고
시루에 살 짝 찢서 햇빛에 말려서 쓴다.

만드는 법: 물 2L에 들국화 50g을 주머니에 넣고 끓이면 된다.

효능: 들국화차는 감기에 좋은 차이며 결핵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다. 눈을 맑게 해주기도 하고
어지러움을 없애며, 해열 진정작용이 열을 내려주고 소염작용이 강해 감기에 좋다.

명예기자 손미경 prettysmk@yahoo.co.kr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다짐합니다"



의장 권 봉 원
덕양구 원신·흥도동

(사무실) 031-961-2500
H·P:011-9055-4300
E-mail:kbwon48@hanmail.net



부의장 박 순 배
덕양구 고양동

(사무실)031-963-7531
H·P:017-260-3220
E-mail:psb3220@hanmail.net



의회운영위원장 이 재 황
덕양구 성사2동

(사무실)031-964-2020
H·P:011-354-9292
E-mail:lih0113549292@daum.net



자치행정위원장 양 효 석
덕양구 효자동

(사무실)02-381-5010
H·P:011-686-5010



사회산업위원장 김 범 수
일산구 백석동

(사무실)031-902-8141
H·P:016-370-8141
www.gykbs.net
E-mail:gykbs@goyang.go.kr



도시건설위원장 최 경 식
덕양구 행신1동

(사무실)031-965-5015
H·P:018-303-8510
E-mail:cks080@naver.com

자 치 행 정 위 원 회



김 태 임
일산동구 마두2동

(사무실)031-905-3454
H·P:016-9237-3457
E-mail:chamwile@hanmail.net



강 영 모
일산서구 일산3동

H·P:017-239-0310
www.home.naver.com/
gyckym
E-mail:gyckym@naver.com



길 중 성
일산서구 탄현동

(사무실)031-977-3313
H·P:019-575-1961
www.kiljs.pe.kr
E-mail:js@kiljs.pe.kr



나 공 열
덕양구 창릉동

H·P:011-470-5090



엄 기 창
덕양구 관산동

(사무실)031-962-2261
H·P:017-351-8066
E-mail:eoumkichang@hanmir.com



이 봉 운
일산서구 송포·송산동

H·P:011-287-0045
E-mail:leebw53@hanmail.net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이 영 훈
덕양구 능곡동

(사무실)031-973-9800
H·P:011-397-1492



정 윤 섭
덕양구 행신2동

(사무실)031-979-3333
H·P:011-347-1211
E-mail:yunsup347@hanmail.net



조 문 환
일산동구 고봉동

(사무실)031-977-4488
H·P:017-220-5484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이재황
- 간 사: 이영훈
- 위 원: 강태희, 김달수, 김태임, 김혜련, 나공열, 박종기, 이창원

- 의장실 965-5012
- 부의장실 965-5013
- 의원실 965-5015
- 사무국장 965-5014
- 전문위원실 967-8049
- 의정담당 965-5016
- 의사담당 961-2522
- 의회 홍보담당 961-2523

사 회 산 업 위 원 회



김혜련
덕양구 화정2동
(사무실)031-921-7001
H·P:016-758-2486
www.kimhr.pe.kr
E-mail:kimhr1109@hanmail.net



김정무
덕양구 화전·대덕동
(사무실)02-3159-8778
H·P:011-277-9973



김현중
일산동구 식사·풍산동
(사무실)031-965-5012
H·P:011-233-6770



박윤수
일산동구 마두1동
(사무실)031-907-6785
H·P:011-796-4055
E-mail:pys6785@hanmail.net



박종기
덕양구 행신3동
(사무실)031-978-6003
H·P:018-281-2351
www.jkpark.or.kr
E-mail:dc2351@hanmail.net



배철호
덕양구 행주동
H·P:011-9271-2345

사 회 산 업 위 원 회



심규현
일산서구 대화동
H·P:017-230-9966
E-mail:skhsaga@orgio.net



이택기
덕양구 주교동
H·P:011-359-5961
E-mail:sernong@hanmail.net



김달수
덕양구 화정1동
(사무실)031-921-7001
H·P:016-220-0089
www.dalsu.pe.kr
E-mail:kimds@klem.or.kr



강태희
덕양구 신도동
(사무실)02-381-6455
H·P:011-417-4666
www.kangtaehee.pe.kr
E-mail:uiop4777@hanmail.net



김경태
덕양구 성사1동
(사무실)031-967-7373
H·P:011-355-7373
E-mail:sungsal@hanmail.net

도 시 건 설 위 원 회



김유임
일산서구 주엽2동
H·P:010-4655-7729
E-mail:kyouim@hanmail.net



박복남
일산동구 정발산동
H·P:016-352-3344



박윤희
일산서구 주엽1동
H·P:011-9866-2697
www.uny.pe.kr
E-mail:uny@uny.pe.kr



이건익
일산동구 장항1·2동
(사무실)031-904-4005
H·P:011-775-4384
E-mail:janghang12@hanmail.net



이창원
일산서구 일산1동
H·P:011-290-3218
www.infocommunity.co.kr/kw
E-mail:tlchango@hanmail.net



최성권
일산서구 일산2동
(사무실)031-976-1357
H·P:017-360-4397
E-mail:love0531sk@hanmail.net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기쁨, 봉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덕양구 지축동에 살고 계시는 서씨 할머니(86세)는 노환과 심한 골다공증과 골반 뼈의 이상으로 혼자서는 누운 채로 고개 밖에 돌릴 수 없는 상황. 이동목욕팀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몸을 씻으실 수가 없다. 앙상하게 야윈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는 예은주씨(44세)는 원당복지관에서 5년째 이동목욕봉사를 해 온 자원봉사자이다. 그녀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받은 많은 사랑을 사회와 이웃에게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이다. 마흔이 넘으면 봉사를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다가 18년 동안 다니던 은행을 IMF 때 시작하고 나서야 그 생각을 실천하게 된 것. 봉사를 하려면 어떤 기술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용기술을 배워 작은 미용실까지 차렸다. 2년 동안 서울 응암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했지만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덕양구 주교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미용실을 접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원당사회복지관은 그녀에게 너무나 반가운 봉사의 기회가 되었고, 마침 이동목욕서비스를 시작한 복지관 쪽에서도 이·미용과 이동목욕서비스를 겸할 수 있는 소중한 봉사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매일 사랑의 이동목욕차를 타고 대상자를 찾아가지만 덕양구의 넓은 지역을 다 관리해야 하므로 막상 대상자들에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밖에 방문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를 갖고 있어 혼자서는 목욕이 전혀 불가능한 분들로 심사하여 선정된다. 이동목욕차에는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커다란 욕조가 있어서 대상자를 이동카트에 싣고 욕조 안으로 옮겨와서 목욕을 실시하는데 조심스레 대상자를 이동하려면 장정 서넛의 힘으로도 부칠 때가 있다. 하지만 말끔히 목욕을 마치고 환하게 밝아진 대상자와 즐거움을 함께 할 때면 마음속까지 벅차오는 기쁨이 큰 보람이라고 예씨는 말한다.

예은주씨는 현재 강남 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6개월 이내로 시한부 사형선고를 받은 환자예겐 하루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녀는 지난해 자신의 유서도 써 보았다. 쓰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역시 자신이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행복했음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가족과 이웃에게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어서 봉사하러 가라는 시어머님의 격려와 말없이 힘이 되어주는 동갑내기 남편, 이화외고를 다니는 공부 잘하는 딸 혜수와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아들 재웅이가 있고, 그녀가 가지 않으면 길어진 머리를 손질 할 수 없어 기다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면 그녀는 너무나 하루가 행복하다.

누구나 나이 들고 병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순환바퀴이다. 비록 지금은 대상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들도 예전엔 무성한 젊음의 시절이 있었고 아직 가슴 속에는 그 시절이 살아있다. 동정심이나 우월감을 갖고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인생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만나야 한다. “내가 바로 대상자라는 생각을 갖고 봉사에 임해야 한다”는 이동목욕팀 간호사 이상규씨의 말은 그래서 더 가슴에 와 닿는지도 모르겠다.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가을엔 계절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간다고 한다.

우울증은 시간의 뒷면인지도 모른다. 바쁘게 시간을 쪼개 나와 이웃을 돌러보며 살아보자. 아름다운 사람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



▲아래 왼쪽이 자원봉사자 예은주씨

명예기자 전의숙 eui2@freechal.com

* 덕양구 성사2동에 위치한 원당사회 복지관(031-966-4007, <http://wdss.or.kr>)에서는 이동목욕봉사 이외에도 도시락, 밑반찬 서비스, 집수리, 의료서비스 및 가정으로 찾아가서 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등 봉사의 범위가 다양하다. 또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아동, 성인, 어르신 대상으로 많은 배움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총 11명의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이 일인 삼, 사역을 해내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더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 특히 남성봉사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의회방청을 해 보세요!

고양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회의장을 개방합니다

의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간단한 절차를 거쳐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사무국(전화:961-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월별	회 수	회기명	회기(일수)	주 요 처 리 안 건	비 고
11 월	제 111 회	정례회	11. 21~12. 16 (26일간)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2006년도 예산안 심의 · 시정질문 및 안전처리 · 2004~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2 월	제 112 회	임시회	12. 20~12. 26 (7일간)	· 안전처리 ·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방청시기

- 정례회 :
제 1 차 정례회 7 월
제 2 차 정례회 11 월 · 12 월
- 임시회 :
필요시 수시 개최(15일 이내)

방청방법

당일에 오셔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http://www.goyangcouncil.go.kr>

홈페이지에는 의사일정, 의정활동, 회의록, 의원소개, 민원게시판 등 의회의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으며, 고양시의회의 대외적 홍보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시민 참여의 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기를 바랍니다.